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4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8. 8.

발 의 자 : 서미화 · 김성환 · 김원이
박수현 · 박지혜 · 박정현
박희승 · 박해철 · 복기왕
이기현 · 이병진 · 이연희
오세희 · 안규백 · 윤중균
조 국 · 조계원 · 조인철
정일영 · 정준호 · 허 영
황정아 · 추미애 의원
(2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의료법」 제15조제1항은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.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.

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진료 거부 금지)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발달장애인 환자에 대한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을 경우 이 법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17조의2(진료 거부 금지) 의</u> <u>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</u> <u>발달장애인 환자에 대한 진료</u> <u>나 조산 요청을 받을 경우 이</u> <u>법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</u> <u>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</u> <u>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</u> <u>다.</u>